

삼성, 2나노 파운드리 생산 확대 글로벌 고객 수주 가능성 높인다

자체 칩 ‘엑시노스 2700’ 본격 양산
첨단공정 경험 기반 신규수주 모색
TSMC 공급 부족도 기회로 작용

삼성전자가 자체 칩 물량을 앞세워 2나노 파운드리 가동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자체 물량을 통해 양산 경험을 쌓는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의 가격 인상과 생산능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고객사 수주를 확대할 기회도 커지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 2700’ 양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을 시작했다. 엑시노스 27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를 적용한 첫 양산 제품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7 시리즈에 탑재될 전망이다.

생산 물량도 전작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엑시노스 2700 생산량은 엑시노스 2600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S27 시리즈에서 엑시노스 적용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자체 AP 물량 확대가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단공정은 초기 양산 과정에서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수율과 공정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엑시노스 27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생산량이 늘면 SF2P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고객사 확보에 필요한 양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세대 2나노 공정인 SF2의 수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SF2 수율이 60%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고 있다. 다만 SF2와 SF2P는 서로 다른 공정인 만큼 SF2P에서도 안정적인 수율과 양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환경도 삼성 파운드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SMC는 제조비와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 1분기 2나노 웨이퍼 가격을 6~8% 추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객사에는 이미 10~20% 수준의 가격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격 인상에도 TSMC의 선단공정에는 주문이 몰리고 있다. 2나노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지만 추가 물량 확보가 쉽지 않

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팹리스 업체들은 제조비 부담과 공급망 다변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TSMC와 생산처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삼성전자는 2나노를 중심으로 고객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테슬라 AI5를 시작으로 후속 AI6까지 생산 물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퀄컴과도 2나노 공정을 활용한 AP 위탁 생산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생산 단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실제 양산 시점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여전히 크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순수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73%로 삼성전자(7%)를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로서는 자체 물량을 기반으로 SF2P의 양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사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선단공정에서는 수율과 양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사 수주에 중요하다”며 “TSMC의 생산능력이 빠듯한 상황이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나노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왼쪽 세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형일 “기업투자 가로막는 요인 적극 개선”

이 부총리, 경제6단체 대표 간담회
반도체 팹 공사 등 현장 애로 해소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름 전 경제사령탑을 맡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 건의·애로 등을 수렴했다. 이어 이를 올해 8월과 10월 각각 발표한 1,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팹(FAB)을 설치할

때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한다. 또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등의 내용도 애로 해소방안에 포함됐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때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로봇과 신유형 로봇을 울타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재정부는, 오창과화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과 차세대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실증 지원 확대 등도 현장 건의를 반영한 사례로 제시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李 “녹색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필수 전제”

K-GX 전략 국민보고회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발표
“녹색시장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및 민간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보고회’를 열고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규정했다.

녹색대전환(GX)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경제·사회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바꾸는 산업·경제 전반의 전환을 뜻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 미래로, K-GX’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K-GX 전략과 민간의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날 유엔(UN)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K-GX를 추진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고 있다.

K-GX 전략은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3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계 협회·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3개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17개 경제계 협·단체가 참여하며 단장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간사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간협의체장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이 맡는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및 한화큐셀·포스코홀딩스·LG전자·삼성전자 등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녹색 기술과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계획을 담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탄소 국경세를 비롯한 탄소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대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뿐 아니라 산업·경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 산업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 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연말까지 대출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1면 ‘고금리 美 국채, 韓 금융’서 계속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수준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의 이자 부담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7.6%로 2017년(11.8%)보다 15.8%p 상승했다. 상장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올해 기업은행의 한계기업 대출잔액은 2022년 말 23조984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7조5952억원으로 14조4968억원

(62.8%) 증가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인 만큼,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만큼 연말까지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뿐 아니라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4분기 메모리 가격 강세 전망… 실적 ‘청신호’

》1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서 계속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9월 PC용 D램 범용제품(DDR 4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6달러로 전월 대비 4% 상승하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도 30.6달러로 전월보다 0.4% 올랐다.

메모리 가격 강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이 전분기 대비 10~15%, 낸드 가격은 15~20% 상승

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업체들이 AI용 고부가 제품에 생산능력을 집중하면서 범용 제품의 공급 여력이 제한된 영향이다.

HBM도 실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6세대 HBM인 HBM4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제품 믹스 개선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3분기 HBM 비트그로스(비트기준 출하량 증가율)가 전 분기 대비 약 5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차현정 기자 hyeon@